



<9월호>

월간 서신원

제 20호(Vol.2-9)

발행인: 권호덕 총장

편집인: 장석조 교수

발행소: 서울성경신학
대학원대학교

발행일: 2016 08 15



내년에 뽑을 바람직한 나라의 지도자像

2016년 9월호

권호덕 총장

15여 년 전에 역사학 교수이던 고(故) 이원설 박사가 현금(現今) 시대엔 모든 사람 아니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는 시대라고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지적한 적 있다. 그만큼 인간은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일은 양(洋) 동서를 막론하고 동일한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권 잠룡들의 국민 지지도를 보면 더욱 실감난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문제는 이런 위기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적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대국(大國)을 자처하면서도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도(度)에 넘치게 타국의 내정을 간섭한다는 느낌을 주는데 100여 년 전 청나라가 구한말에 조선을 자기 마음대로 간섭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런 점에서 내보기에는 중국은 G2 지도자로서 세계의 지도국으로서 부적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은 이미 대외적으로 국가다움을 잃어버린 지 오래지만, 핵무기와 미사일에 집착하여 그것을 고도로 발전시켜 남한을 위협공갈하고 있다. 이들의 행태는 거의 깡패 수준이다. 사실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면 한반도는 잿더미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요즈음 수많은 청소년 세대들은 객관적이지 못한 무리들에 의해 한국 전쟁과 현대 한국 역사를 사실대로 배우지 못해 거짓이 우리 사회를 판친다는 사실이다. 육이오가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귀중성과 중요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진퇴양란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우리는 1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할까에 대해 고민해야 될 것이다. 단순히 예수 믿는 기독교인? 단순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아니면 단순히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사람? 모든 성도들은 나름대로 시각으로 지도자상을 만들고 그런 인물이 나오면 적국

추천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물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첫째, 그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투철해야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씨조선 시대까지 국민 개인의 자유를 모르고 노예처럼 살았다. 더구나 일제강점기에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타국의 노예로 살았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알 것이다. 남한에 와서 자유를 누리는 탈북자들은 이 자유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둘째,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남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무리들을 법대로 처단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인물이다. 선동에 약한 민중들은 거짓에 근거한 선전 내용을 믿고 거기에 동조하여 나라를 혼란속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이런 반국가적인 무리들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셋째, 출세주의와 거리가 멀고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그동안 오직 나라를 위해 사명감으로 일해 온 사람이다. 이런 점에서 법전문가는 더욱 좋을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 풍토는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며 그를 이용하여 자기 출세를 추구하는 인맥주의가 판을 친다. 이런 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국민들을 이용할 뿐이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한 사명감을 절실히 느끼는 자라면 더욱 좋은 것이다. 이런 자에게는 사실상 부정적인 의미에서 권력의지가 없다. 오직 사명감이 있을 뿐이다. 이 사명감 때문에 그는 목숨을 다하여 나라를 지키고 봉사하며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을 자기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남용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명감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섬기는 차원에서 통치할 것이다.

다섯째, 모든 국민의 성향이 다양함을 인식하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 존재의의를 실현케 하는데 도움이 되는 덕을 지닌 인물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왕직분은 백성들이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서로 봉사하여 공동체 전체를 풍성케 하는데 초점이 있다.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 국민들의 영적 수준과 같이 간다고 한다. 나라의 위기를 당하여 모든 성도들은 자아반성과 쇄신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년에 있을 대선을 내다보며”

(편집실)

내년에 있을 대선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결국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손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람직한 대통령을 뽑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 현대사는 국민들이 선택이 주민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했나를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동향을 보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 등 기존 윤리체계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득세하는 듯이 보인다. 만일 이런 일들이 실현된다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설교할 수 없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도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을 정확하게 점검한 다음 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들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인물들은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노력하는 자들이다.

서구 기독교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에 바탕을 둔 정치가 발전하여 많은 정치가들을 키웠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인데, 이종운 목사는 그를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나라 지도자를 여망한다.

이종운 목사 미래한국 상임고문

webmaster@futurekorea.co.kr



“열개의 머리와 백개의 손을 가진 자”라는 칭송을 받았던 아브라함 카이퍼 (Abraham Kuyper)는 다방면에 천부적 재능을 가졌으며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신학을 세계화시키는 일에 그의 전 생애를 바쳤다.

19세기 네덜란드가 낳은 카이퍼는 위대한 신학자요 교회 개혁가며 정치가, 교육가, 언론인이었다. 그는 불을 토해내는 대설교가였고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세웠고, A.R.F. 정당의 당 총재가 되어 하원의원, 종신 상원의원을 거쳐 수상이 되어 칼빈주의적 정치를 실현했다.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 국립대학에 대항하여 성경적, 신본주의적 칼빈 사상을 가진 네덜란드 자유대학을 설립하

고 교수로 총장직을 수행했다. 자유대학을 개교하면서 영역주권 사상을 제창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아브라함 카이퍼

(1837-1920)

그의 명언: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전 세계에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곳은 한 치의 땅도 없다.”

그는 일간지인 ‘스탠다드’지를 창간해 편집인이 되었고, 주

간지 ‘헤라누드’지를 창간해 45년간 편집장으로 일했다. 1862년 그의 서거 때까지 한평생 223권의 크고 작은 책을 저술했다.

그중에는 신학,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교육 등 손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논리가이자 실천자로서 감성, 지성, 영성뿐 아니라 의지력, 호소력, 리더십을 한꺼번에 갖춘 걸출한 인물이었다.

카이퍼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논쟁가였다. 그는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사수하기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반대자들을 굴복시켰다. 카이퍼는 예술적 감성도 많이 갖고 있었다. 상상력이 풍부했고 감상적이기도 했다. 지성, 영성, 감성을 한꺼번에 소유한 보기 드문 인물로서 시간을 쪼개 성경 명상록을 썼다.

카이퍼는 26세 때 목사가 되었고 그의 첫 목회지에 가서 두 번째 회심을 체험하고 개혁주의 신학자와 목회자로 거듭나게 된다. 카이퍼의 회심으로 그의 영적인 변화 뿐 아니라 그의 학문, 사상, 세계관 전부가 변했다.

카이퍼는 위대한 기독교 정치가였다. 그의 신학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일반은총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잘못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64세 때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철도 대파업 문제를 해결했고, 고등교육법안을 개정 통과시켰고 금주법과 사회보장법을 만들었다.

신학자로서 정치가로서 교육가로서 그의 평가는 그가 살아 있을 때보다 하나님 면전(Coram Deo)에서 그가 행함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칼빈주의관 관점을 전 세계가 기독교정치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오늘의 한국에 카이퍼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세우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불꽃처럼 타오르게 할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미래한국** 530호

<학교소식>

1. 2016년 2학기 개강

-8월 29일 오전에는 석박사 과정의 강의가 있었고 오후 1시 30분에 개강예배와 학사 안내가 있었다.

-저녁 식사는 안천교회 서정환 목사님의 배려로 모두가 함께 식사했다.

-개강집회: 8월 29일 오후 7시에 안천교회 서정환 목사님이 스바냐서를 중심으로 ‘남은 자’ 사상을 설명하며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삶에 대해 교훈해 주었다.

2. 우리 학교와 MOU맺은 호주 SCD대학교 한국학부 학장인 김호남 박사가 8월 25일에 본교를 방문하여 몇몇 교수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좋은 정부를 교환하고 식사했다.

3. 8월 31일로 본교의 세분의 교수가 사임했다. 이정연 교수, 오찬윤 교수, 송무현 교수. 이들은 명예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학교가 필요한 경우 계속 봉사한다.

4. 8월 26일 오후에 루디아 장학회 회장단이 본교를 방문하여 격려함.

5. 교수 논문집인 ‘성경신학저널’ 제 7권이 발간되었다.

<주석에서 설교까지>

이번 호부터는 대학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성경학자가 성경본문을 주석하고 조직신학자가 그 내용의 신학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에 근거하여 설교를 만드는 틀을 마련하는 글을 올린다.



에스겔 주해(5)
상징행위

박영복 (구약학,
Ph.D.)

에스겔 4:1-3

(성경주석)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에스겔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direct approach)을 사용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우리 말 성경에는 비슷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히브리어로는 1절(**וְכָל**

וְאַתָּה, ‘그리고 너 인자야’), 4절(וְאַתָּה, ‘그리고 너는’), 9
 절(וְאַתָּה, ‘그리고 너는’)에서만 각각 이 호격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발단으로 각기 다른 명령을 에스겔에게 지시하
 시므로, 본문을 세 단락(1-3절, 4-8절, 9-12절)으로 나누
 어서 묵상해 볼 수 있다.

먼저, 에스겔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1-3절 말씀으로 상징행동(symbolic action or sign act)에 관한 것이다. 상징행동이란 “선지자가 말씀으로나 직접 본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고 몸으로 극(드라마)을 연출하므로 하나님의 의중을 전한 방법인데, 단순한 상징의 수준이 아니라 사건의 시작을 의미하는 보다 실질적인 수준의 계시”이다.¹⁾ 쉽게 말해서, 말로써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지시하신 상징행동의 내용은 이렇다. 에스겔은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의 모형을 그린다.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듯이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돌려야 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 예루살렘이 포위공격을 받는 모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나타나심을 기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은 곧 하나님께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명령은 뜻밖의 내용이다. 에스겔은 자신과 그 예루살렘의 모형 사이에 철판을 가져다가 세워두어야 했다. 그리고 그 철판은 주위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야 했다. 다시 말해서, 그 철판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토판에 그려진 예루살렘의 모형 앞에 놓인 철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협적인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대적(enemy)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다(겔 6:1-3 참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향한 이 엄청난 사실을 확증한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저것이 징조(תּוֹא)가 될 것이다.”²⁾ 에스겔의 이런 상징행동으로 드러내는 예루살렘의 포위공격이 앞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벌어질 일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신학)

왜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원수처럼 여기실까?
우리는 조직신학의 인간론을 통해 대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자기에게 거역하는 모든 인간들은 원수
로 여기신다. 바울은 이런 인간을 육신 또는 육으로 표현

1) 현창학, 『선지서 주해 연구』(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13), 214

2) 사역(private translation)

한다. 이 욕신은 성령으로 사는 영에 대립되는 인간을 의미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선민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욕신들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신 것이다. 이것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만일 실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욕신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의미를 제시한다.

<설교작성>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짧지만 강력하고 단호하다. 에스겔의 상징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메시지의 내용을 묵상해 본다면 더욱 더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3장 25-27절에서 에스겔은 이미 조건적인 병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만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아마도 악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에스겔을 보호하는 조치였던 것 같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의 사명을 띠고 적들의 침입을 경고해야 했던 에스겔은 병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감당해야만 했다. 드디어 첫 번째 임무가 주어졌다. 그 임무는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더욱 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다. 그 첫 번째 임무는 몸으로 전하는 말씀이었다.

에스겔은 토판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모형을 그린다.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듯이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돌렸다. 모든 것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남아있었다. 에스겔은 자신과 그 예루살렘의 모형 사이에 철판을 가져다가 세워두었다. 그리고 그 철판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그 주변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놓여 있었다. 철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철판에 비하면, 예루살렘 모형도 그렇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언덕과 공성퇴도 그렇고 하찮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철판이 향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적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듯이 말이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신단 말인가?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에스겔의 동료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다. 어찌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들의 유일한 희망인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

들에게 가히 상상도 못할 일일 것이다. 더군다나 그 공격을 지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보내시는 것도 모자라 왜 이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꺾어 놓으셔야 했다는 것인가?

우리는 흔히 '성도'라는 큰 테두리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만 하는 안일함에 자신을 가두어 버린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회개'만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규칙적으로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신앙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 굳건히 서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룩을 성실히 이루어가고 있는가?

본문에서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심을 공표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백성의 대적이 되셔야 했는가? 율법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벽인 죄를 없애고 거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넘어서 오히려 불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신 것이다. 불의를 보고 심판치 않는 것은 공정한 하나님으로써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으로 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심으로써 그들의 불의와 오만과 헛된 희망을 심판하셨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하였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점점 성화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정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의 헛된 안일함이 '이정도면 되었지'라는 교만의 늪에 빠지게 만들지 않았을까? 사실은 우리가 평생 부지런히 노력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명심하여 안일함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자!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5, 12)



또 하나의 섬을 위하여

이경아 박사

가끔은 섬을 찾는다. 바쁜 일상의 틈새에서 그래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이제는 섬 같지도 않은 월미도다. 그 월미도에서 배를 타면 갈 수 있는 섬이 몇 군데 있다. 작약도와 석모도, 그리고 무의도다.

월미도에서 그 중 어떤 섬을 가기 위해 배를 탄다. 섬에서 섬으로 가는 배. 언제나 그렇지만 섬에서 섬으로 가기 위해 탄 배에서의 느낌은 물결만큼이나 착잡하다. 마치 배가 밟고 지난 바닷물의 신음과도 같이 끓어오르는 하얀 포말처럼. 아니 배에서 던져지는 먹이를 따라오는 그 많고 많은 갈매기처럼. 갈매기의 날갯짓처럼.

갈매기.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던져지는 먹이, 그리고 작고 짧게 깹,하는 소리.

먹이를 따라 일순 달려들다가 어디선가 깹,하는 소리가 나면 언제나 이상하게 생각되던 순간의 장면. 그것은, 순간적으로 뭔가 신속하게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처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마치 무슨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달려들던 갈매기들의 그 현란한 날갯짓이 일순 정리되고 있다는 그 느낌. 그 때 나는 내가 너무 예민해서 나만 듣고 느끼고 보는 실상인 줄만 알았었다. 아니 과거형을 쓸 게 아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느끼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나는 모르니까.

지금, 되살아난다. 그 소리. 바다에서 들을 수 있는 평소의 갈매기 소리보다 훨씬 작고 단음인 그 소리. 깹. 나는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섬에서 섬을 잇는 바다 한가운데서 이 소리를 듣기를 바란다. 이 광경을 보았으면 좋겠고 이 실제적이고도 범상치 않은 갈매기 세상의 질서를 감지하고



느끼고 지각하기를 바란다.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게 되기를, 체득하게 되기를 소원한다.

생각난다. 아주 옛날, 나 사춘기 적, 군산에서 배를 타고 갔던 무녀도. 그 무녀도에서 배를 타고 갔던 장자도. 또 선유도. 섬마다 앞장불엔 하얀 뼈와 비늘이 물결을 닮은 은빛으로 반짝이며 말라가던 멸치와 얼굴에 쥐가 기어다니는 꼬마들의 꿈이 그물처럼 널려 있었다. 군데군데 금이 간 흙담 모퉁이를 돌다보면 담 너머로 보이는 조출한 마당. 너른 평상 옆에는 언제나 몇 마리의 닭이 마치 내가 그렸던 그림처럼 있었다. 굴뚝 옆엔 포플러 나무. 정말 내가 그려 상 받은 그림처럼.

모두 동네를 그려왔었다. 집을 그려야 했던 숙제였는데. 그곳에서야 비로소 나는 깨달았었다. 11살에 그린 내 그림이 왜 장원을 했었는지. 어린 시절, 당시 인천에 있던 외할머니 댁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이었지만 시골 어딜 가도 찾을 수 없었던 초가에 낮은 담, 담장 안에 닭이 모이를 먹고 굴뚝 뒤편 포플러 나무 몇 그루, 내 그림이 그대로 거기 그 섬에 있었던 것이다.

닭이 모이를 먹을 때, 생각 속에서는 조용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 난리도 그런 난리는 없었다. 마당에 저희들 앞에 주욱 펼쳐진 게 널린 게 모이였는데도 어쩔 그렇게 싸움질을 해대는지, 정말 시끄럽고 싫었던 기억. 그러다 보니 다시 갈매기에게로 돌아간다. 생각에도 귀소본능이



있 어 서
성 정 에
맞는 곳
으로 되
돌아가는
것 인 가
보다. 나
이가 들
수록 고
향을 그

리워하고 소꿉친구 안부가 궁금한 것처럼.

어디선가 깹, 소리가 나고 언제 누구부터라고 할 것도 없이 뭔가 정리가 되면 언제나 나타나는 건 그, 깹,하는 소리의 주인이었다. 그 갈매기가 하나뿐인 그 먹이를 낚아채면서 공중으로 휙 날아오르는 것이다. 아마도 이 신비로운 장면은 갈매기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움직임과 소리에 집중해야 들을 수 있으리라.

평소보다 작고 짧은 외마디 신호. 그 소리에 의해 그들의 공간에 던져진 그 하나밖에 없는 먹이의 주인이 결정된다. 단 하나뿐인 먹이는 이렇게 삶을 대하는 갈매기의 자

세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아마 닭도 그렇지 않을까. 아무리 많은 모이가 주어져도 언제나 머리를 들이받고 몸싸움을 하는, 그것도 질서라면 질서일 텐데. 그럼 나는 뭔가. 또 당신은. □

- 이상아 수필집 『조용히 사랑하고 싶다』(2010) 중에서

<신약주석>



골로새서 해석

골로새서 3:12-17절

최흥식 교수(Ph.D., 신약학)
(헛불신학대학원대학교, 재건 측)

본문개관
개요

본문은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은 골로새 교인들이 살아야 될 새 사람의 구체적 삶을 담고 있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분 된다. 첫째 단락인 12-15절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새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덕목을 가지라는 바울의 권고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단락인 16-17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새 사람의 덕목들 - 12-15절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언약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랑이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게하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띠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차별과 장벽을 허무심으로써 언약백성과 비 언약백성, 자유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어 인류에게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이 평강으로 초대하시어 그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이 평화가 신자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한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불화와 분열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새 사람의 예배 - 16-17절

신자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풍성하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성도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주 예수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며 그 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절별 주해

12절: 바울은 회심하여 개종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가져야 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기독교 윤리 덕목을 입으라고 권고한다. 새 사람이 되어 더 이상 유대인으로부터 “무할례당,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으로(엡 2:12) 차별대우 받은 신자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로 묘사한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칭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골로새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그 것에 걸 맞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지상사역 동안에 이 덕목들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분은 자비로우셔서 불쌍한 자들을 친절히 도와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까지 겸손하셨다. 예수님께서 산상 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고 말씀하셨다. 온유는 남을 부드러운 자세로 대하는 것인데 결코 연약한 모습은 아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인내하셨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13절: 바울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권면한다. “불만”은 남의 잘못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의미하는데 서로에 대한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든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참고 이해하며 용납해야만 교회에 동정적이지도 않고 적개적인 환경에서 공동체로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한다. 그 이유는 주님(그리스도 보다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말씀 하신다(마 6:14).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야한다. 용서가 잘못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물 수 있고 갈라지고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시킨다.

14절: 바울은 위에서 말한 신자의 덕목들 위에 사랑을 더하여 입으라고 권면하는데 그 이유는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띠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사랑을 최우선 덕목으로 여긴다(고전 13:13 참조). 이 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예수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마 5:44).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다(막 12:29-31 참조). 사랑은 불완전한 인간의 공동체를 완전히 화목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덕목과 성품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고전 13:4-5). 사랑은 “완전함의 띠”이라는 말은 사랑은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띠임을 의미한다. 사랑은 교회를 연합하고 단합된 신앙 운명 공동체를 형성시켜 완전한 영적 성숙으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신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해야한다. 그리고 사랑은 신앙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한다.

15절: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된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가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룬 화평과 화목을 통해 주어진 마음의 평안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이세상의 악한 세력 즉 사탄의 권세아래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고 죄로 인해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 시키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신자들에게 주셨다. 이 평강이 개인적 경험과 생각의 중심인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라고 권고한다.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평강으로 부르셨다. 평화는 인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초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해하여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화목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화목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차별과 장벽을 허무함으로써 언약백성과 비 언약백성, 강자와 약자, 자유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고 한 새 인류를 창조하셨다(엡 2:15 참조). 이 새 인류가 한 몸과

지체가 되어 존재하는 곳이 교회이다. 교회에 평강이 없고 분열과 싸움이 있다면 이는 신앙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감사의 표시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해야 한다.

16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는 것 대신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신자의 예배의 요소들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즉 복음을 지칭한다. 복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존재해야 하며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다. 개신교는 말씀 선포를 예배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신자의 영적 성숙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성장의 자원이다. 말씀이 역사하여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주님의 말씀이 또한 교회의 모든 법도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사모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 신자의 예배의 요소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이다. “모든 지혜”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시하신 복음과 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배움으로써 습득한 모든 지혜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담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야한다. 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시”는 다윗의 시편처럼 하프 연주에 붙여진 노래를 가리킨다. “찬미”는 신들이나 영웅들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신령한 노래”는 성령의 감화로 불러진 노래를 말한다. 예배의 네 번째 요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위대하고 감사하여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신자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미하여 그 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러한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17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예배뿐만 아니라 신자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주 예수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며 그 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경배, 그리고 감사는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와(롬 12:1-2)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말에나 일에나”는 신자의 언어생활과 행동을 일컫는 삶의 전 영역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름”은 어떤 사람의 권위와 명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알리는 방법으로 불려지고 사용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는 축귀와 치유(막 9:38; 행 3:6; 4:10) 그리고 세례를(행 2:38; 10:48) 행할 때 사용되어 진다. 예수를 주로 신앙 고백하는 신자들은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여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다. 신자는 주 예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며 의지하면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고한다. 신자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조직신학>

하나님은 누구신가? (16) 삼위일체론 강의(9)



이동영 교수(조직신학, Dr. theol.)

삼위일체교리는 신학적 사변으로부터가 아니라 예배(송영)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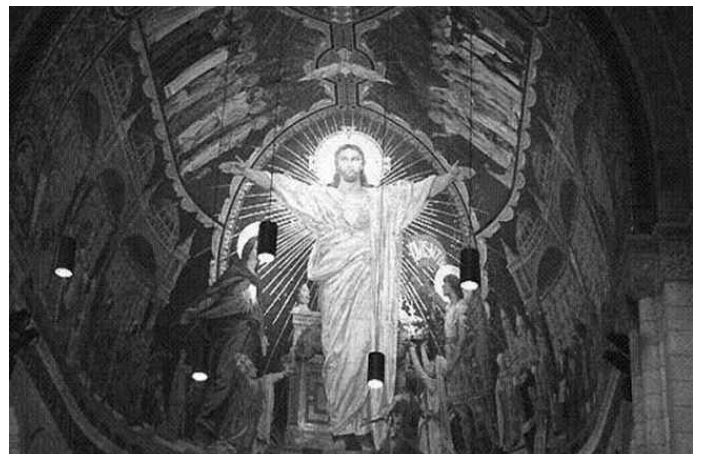
일전에도 말씀 드렸드시피, 삼위일체교리는 신학자들의 책상에서 그들이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으로 사색하여 고안해낸 교리가 아닙니다. 이 교리의 배후에는 원시교회(alte Kirche), 즉 초대교회의 구원의 경험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현존의 체험과 더불어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사건이 공동체 속에 새롭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사역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너무나 생생하고 선명하게 공동체 속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삼위로 고백하게 했으며, 그들의 공동체 예배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경배(예배)되고 찬양(송영)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논리를 따라 정리하고 해석을 가한 것이 삼위일체교리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지만, 삼위일체교리 뿐만 아니라 모든 교리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예배로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의 예배야말로 삼위일체

교리를 포함한 모든 교리의 근원이요 모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야말로 모든 교리들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 즉 탄생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싶군요. 예배 속에서 경배되고 찬양되던 성 삼위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신학적 논리를 따라 정리하고 해석을 가한 것이 삼위일체교리였던 것이지요.

사변하기 이전에 경배를!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삼위일체교리 뿐만 아니라 모든 교리가 예배로부터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케돈 공의회(Konzil von Chalcedon)의 기독교론으로 알려져 있는 ‘두 본성 교리’(Zwei-Naturen-Lehr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리는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인격’(μία υποστασις) 속에 ‘혼합 없이’(α-συνκνυτος), ‘변화 없이’(α-τρεπτος), ‘분열 없이’(α-χωριστος), ‘분리 없이’(α-διαιρετος)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이단들과의 논쟁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초대교회의 공동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경배되고 찬양되었으며, 그 신성과 인성의 혼합 없음과 변화 없음이, 그리고 분열 없음과 분리 없음이 깊은 묵상과 성찰 가운데서 경배되고 찬양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삼위일체교리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론 교리 또한 그 교리가 먼저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예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부 아퀴타니아의 프로스퍼(Prosper von Aquitanien)는 “예배의 법이 신학의 법을 앞선다”는 유명한



한 말과 함께 예배가 신학 내지는 교리의 원천이며 모태임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삼위일체교리의 항목들 중에 삼위일체교리의 구성에 관한 교리와 더불어 가장 난해한 교리에 속하는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의 관계에 관하여 논구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교리를 논구하기 이전에 삼위일체교리를 사변하는 것 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이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적 탐구는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고 삼위일체교리가 단지 신학적 사변과 탐구의 대상인 이들에게 이 교리에 대한 사변과 탐구는 단지 교리지식을 넓히는 이상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교리 배후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경배와 송영의 정신을 결코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부터 구원의 삼위일체이며, 그러기에 ‘구원의 신비’(mysterium salutis) 그 자체인 ‘경륜적 삼위일체’(Oekonmische Trinitaet)와 하나님의 본질의 삼위일체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비’(mysterium Dei) 그 자체인 내재적 삼위일체(immanente Trinitaet)에 대한 개념규정과 그 양자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약강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바울의 회심과 소명(2)



장석조 교수
(신약학, 성경적설교연구소 소장)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종말론적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 종말론적 구원 사역은 세례 요한에 의해 준비되고 예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전수받아 그 사역을 수행했다. 사도들의 사역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회심 문맥(8-11장)에서 나타난다. 바로 그 중심에 바울의 회심이 놓여 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회심 후 곧바로 예수님이 주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소명을 수행한다. 누가는 바울의 회심과 소명 사이에 바울의 회심을 보다 명백하려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만난 초자연적 경험을 보다 객관적으로 표현한다(9:7-9). 바울이 빛으로 인하여 시력을 상실한 것은 스테반이 인자를 본 것과 대조되며(7:56), 회심의 객관성을 지지해준다.

바울의 회심은 신적 인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에 의해서도 공인된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그의 소명이 무엇인지 전달한다(9:10-16). ‘제자’ 아나니아는(10절)은 바울이 ‘행할 것을 이를 자’(9:6)를 회고시키며 두 문단을 연결시켜준다. ‘주’의 2회 반복과 아나니아의 ‘주’호칭은 회심의 핵심 요소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경험과 같은 것을 경험한 아나니아가 사울의 회심에 대한 신적 공인자임을 강조해준다.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11절)과 3일간의 식음 전폐 등

일련의 행동들은 자신의 회심을 다메섹교회 안에서 인증 받는 것과 연결된다. 안수를 통한 치유는 회심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소명을 위한 준비를 예고한다(9:17-19가).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신적 명령을 받고도 바울의 펄박 소문으로 인하여 그의 회심을 공인하지 않으려고 망설인다. 아나니아의 망설임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회심시키는 주님의 비전에 망설이는 것을 예고한다.

바울의 소명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15절)으로 명시된다. 이것은 그의 회심을 확증케 한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소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그의 회심을 더 확증케 하는 기능을 한다.

바울의 회심과 소명은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하는 데서 확증된다(9:17-19가). 아나니아가 주님의 비전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면서 ‘형제’(17절)라고 부르는 것은 다메섹교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참된 회심을 가리킨다. 여기서 안수는 다시 보게 하는 치유의 수단으로서 회심을 공인하는 통로로 기능한다. 바울은 안수로 육체적으로 다시 보는 치료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17-18절). 성령의 선물은 신자의 표지요(2.33, 38) 동시에 증인으로 소명받는 수단이다(1.8; 3.4; 26.16-18).



바울의 회심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는 것으로 더욱 분명해진다(9.19나-31). 사울이 며칠간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19)은 바울의 회심이 아나니아에 의해서만 아니라 다메섹의 모든 제자들에게도 인증되었다는 표시이다. 사울은 회심의 공인에 이어서 곧바로 소명에 순종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20절). 그 선포내용은 시 2.7을 부활/승천하신 예수께 적용한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행13.33)를 예고한다. 그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은 그의 회심과 소명을 확증해 준다. 바울이 소명에 순종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 듣는 사람들의 놀라는 반응은 펄박

의 주제와 함께 그의 회심 뿐만 아니라 소명을 강화시켜 준다.

사울이 소명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항상 회심이란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사울이 소명에 순종하는 2개의 기독교적 증거(20, 22)은 놀람의 부정적인 반응(21절)과 교차대구를 구성하면서(19나-22), 사울의 회심/소명을 확증하는 기능을 한다. 사울이 복음전파로 인한 거절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힘을 더 얻게 된(22절)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를 가리킨다(17). 여기서 성령은 회심을 발생시키는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회심을 확증시키는 사역을 하고 더 나아가 소명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효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19나)과 같이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 것(26)은 자신의 회심을 인정받으려는 태도이다. 그러나 다메섹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그의 회심('제자됨')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예루살렘에서의 회심과 소명에 대한 인 증은 제자 바나바를 통해서 수행된다. 그는 사울의 다메섹 비전과 사명수행에 기초하여 제자들과 함께 복음증거사역에 동참하게 공인해준다(26-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의 공인과 소명에 따른 복음사역은 불가피하게 유대인들에게 죽을 위험에 처할 정도로 핍박받게 된다. 바로 그 핍박은 다소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다소는 안디옥사역을 준비하는 장소가 된다. 여기서 핍박은 또 다른 곳을 향한 소명을 위한 부정적 수단이다. 리우스켄스는 요약구절(31)을 베드로의 증인사역에 포함시키지만 다른 요약구절과 같이 이 구절은 바로 앞에 있는 바울의 회심과 소명의 결과를 회고하는 주기능을 가리킨다. 즉 바울의 회심과 소명으로 인하여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이것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 베드로의 사역을 예고하게 한다. 그러므로 31절의 요약문은 우리가 9장을 더 넓은 문맥의 구조분석에서 보도록 유도한다. 다음호에서는 바울의 회심과 소명이 나타나는 사도행전 22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선교신학>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만이 답이다



배춘섭교수(Ph.D. 선교신학)

오늘날 한국교회는 적지 않은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런 비난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교회의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개신교에 관계된 사건이라면 더욱 공세적 자세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목회세습이나 불투명한 교회의 재정문제 그리고 종교인 과세를 비롯한 몇몇 성직자의 비도덕적 윤리문제 등

과 같은 이슈(Issue)는 언제나 초미(焦眉)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상은 최근 한국 개신교인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달리 말해, 현재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상실해가고 있고, 교회강단은 복음을 가장(假裝)한 다른 거짓복음이 복음을 대체(代替)하는 위기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교회가 망들어 가고, 그 빛이 바래져 가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중세교회 시대의 '기독교제국'(Christendom)이 낳은 교회의 왜곡된 신앙관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적 측면에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수많은 박해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 순교하면서도, 개인이 받는 고난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순결한 신앙으로 승화(昇華)시켜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적 동력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비록 초대교회는 기독교 문화와 사회적 국가체제는 갖추지 못했지만, 이런 개개인의 순결한 신앙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다.

반면 이런 순수한 교회의 모습은 중세말기에 접어들면서 색이 바래졌다. 기독교가 제국화가 되면서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점차 상실했고, 결국 교권주의를 비롯한 세속화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당시 교황의 교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강화되어 갔다. 교회에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물질과 재정이 넘쳐났다. 교회는 기독교 문명과 문화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은혜를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빛의 자녀를 통해 구원사역을 이루셨고, 심지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방식까지 동원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 때 주로 쓰임 받은 자들은 '수도원 운동'의 수도사들이었으며, 그 외에 '선교단체'를 통해 사역했던 선교사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타락을 벗어날 수 없었다. 기독교제국 시대는 "복음과 문화"에 관해 성경적인 바른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비(非)복음적 요소는 다양한 국면에서 왜곡과 변질을 불러왔다. 첫째는 교회와 국가의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그릇된 가치관이다. 교회가 세속적 국가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추후에 교황청이 굴욕적으로 프랑스의 작은 마을 '아비뇽 유수'로 이전하게 되면서 교황청에 분열과 수치심을 안겨주며 깨어졌다. 둘째는 전통과 문화적 요소를 성경과 견줄 정도의 위상에 올려놓은 사상이다. 복음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이해는 결국 '면죄부'를 비롯한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라는 비성경적 사상을 교회 안으로 불러일으켰다. 더 나아가 선교에 있어서도 상황에 맞춘 복음화가 되어 혼합주의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가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경의 진리

를 통해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고 선교를 위한 모달리티(Modality)와 소달리티(Sodality)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교회가 ‘기독교 선민의식과 탐욕’에 사로잡혀 배타적이고 부패한 모달리티(modality)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히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위한 모달리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한 선교적 교회로서 소달리티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중세시대의 기독교제국은 타락한 교회의 모습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된다.

이제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답이다. 한국교회는 인간이 주권을 움켜쥔 채 이기적이고 부패한 모달리티의 모양을 취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교회는 사사기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현세대에서 재현하지 말아야 한다. 인본주의, 성공주의, 물질만능주의 종교다원주의 등과 같은 기독교제국의 욕망을 자극하는 비(非)복음적 사상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예배가 살아있는 모달리티’,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소달리티’로서의 교회의 참된 모습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전9:14)

<역사의 교훈>

헌법 원칙의 관철로 독일(獨逸)통일 이루다



이 글은 보수언론 주간지 ‘미래한국’ 530호에서 가져온 것으로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하여 여기 실는다.

▲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미래한국 편집위원

독일 통일은 자유와 민족자결권 수호, 서독 기본법 정신을 수호하는 것, 그것은 유럽의 통일을 추구하고, 동시에 전체 독일인들에게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통해 독일통일과

자유를 완성하도록 촉구하는 것

독일통일의 성공요소와 원칙

독일통일의 성공요소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군의 장기 주둔과 함께 서독과 미국의 상호협력 관계가 꾸준히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역대 서독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안보 비용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에 매진할 수 있었다. 또 서독 정부는 미국의 안보 및 대(對)유럽 정책에서 거의 대부분 열성적으로 미국에게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둘째, 유럽 열강 중에서는 소련 고르바초프 정권의 협조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 동독 탄생의 배후세력인 소련은 동독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다. 소련 군부가 독일통일에 강하게 반발한다거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치가 실패하면 이것이 통일의 강력한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다.

콜은 고르바초프와의 인간적 관계를 돈독히 했으며, 나아가 고르바초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그의 국내 입지를 강화시켜주었다. 이는 독일 문제에 대한 소련의 내정 불간섭으로 이어졌다.

셋째, 콜 총리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도 돈독한 협력 관계를 쌓았다. 당시 독일은 유럽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에 콜은 미테랑에게 프랑스와 협조관계를 이뤄 유럽통합으로 함께 갈 것을 강조했다. 미테랑은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유럽 열강들은 통일독일이 나토(NATO)에서 탈퇴하여 독자노선을 가는 통일독일의 중립화에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그것은 통일독일이 불안정한 유럽의 핵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있었다. 유럽 열강들은 모두 통일독일의 나토에의 잔류를 희망했고, 서독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넷째, 콜 정부는 동독 주민들의 집단 탈주로 인한 통일의 결정적 순간 헝가리 네메트 총리의 개혁정치를 지지했으며 헝가리의 서독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989년 9월 10일, 헝가리 정부는 동독에서 탈출한 동독인들에게 문을 열었다. 며칠 뒤 동독 탈출자 숫자는 무려 10만에 이르렀다.

네메트 헝가리 총리는 그들의 국경 통과를 허용함으로써 동독인들의 서독 이주를 도왔다. 콜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헝가리에 5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했으며, 비자 면제,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독일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다섯째, 서독 정부는 1950년대부터 체제 전복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부의 적들을 정리했으며 이들의 활동을 꾸준히 감시, 사찰해왔다. 즉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에 대한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간직한 서독의 기민당과 보수정치인들은 집권 초기부터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국론 분열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극좌·극우세력이 준동·발호할 기회와 구실을 주지 않았다.

서독 정부는 1950년 후반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극우·극좌 정당을 해산, 정리했다. 서독의 불법 정당 해산 과정은 철저했다. 위헌(違憲) 판결을 받은 단체는 출판·집회 등 기본권을 뺏고 위헌 정당이 이름을 바뀌도 끝까지 추적해 해체시켰다.

예를 들어, 동방정책을 편 빌리 브란트 총리는 동독에겐 웃으며 대했지만 서독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히 속아냈다. 서독 시절 위헌 단체를 모두 해산했고, 또 통독 후 지금까지도 위헌 단체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해치는 단체들은 법적으로 뿌리를 뽑아 버렸다. 이것이 독일이 통일된 후 이념적 혼돈이 없었던 이유다.

여섯째, 서독 정부는 독일의 슈타지(비밀경찰) 피해 사례가 기록된 잘츠기터에 중앙조사처를 설립하여 동독 공산정권의 폭력 행위와 인권 침해를 조사하여 그 행위자에 대해 형사소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독 정부에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동독의 국경 수비대들로 하여금 탈주자들을 정조준하지 않고 옆으로 총을 쏘게 했으며, 많은 정치범들을 고문에서 지켜주는 효과를 가져다주었기에 동독 주민의 인권 보장에도 기여했다.

돌이켜보면, 서독 정부가 건국 초기부터 기본법에서 자유와 민족자결권이란 통일의 기본원칙에 대한 천명(闡明)이 있었고, 이를 끝까지 고수했던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949년 9월 15일에 출범한 서독의 초대 총리 콘라드 아데나워는 통일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바, 서방측이 단합하여 힘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만이 소련에 압박을 가하여 통일 문제에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아데나워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1953년 6월 17일 소련이 그들 점령지역에서 일어난 동독 노동자들의 봉기를 탱크로 진압했을 때, 아데나워 정부는 서독이 서방 세계와 통합하는 것 외에는 정치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데나워 정부는 서독의 재무장과 일반 병역의무 도입 및 군대 창설, 서유럽 군대 및 나토 참여에 대한 결정을 밀고 나갔다. 1949년 서독은 건국 초기부터 ‘단독대표권’을 주장하여 동독의 정부수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동독이 자유선거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간주했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외무성의 서기관 이름을 딴 ‘할슈타인-독트린’이 도출되었다.

서독은 다른 국가들의 동독 승인을 막기 위해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여 외교적으로 동독의 고립을 시도하고, 동독에 대한 대결정책을 고수했다. 1969년까지 이 원칙은 지켜졌다.

이에 반발한 동독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을 설치했으며, 동독 대 서독의 냉전체제가 고착화되었다. 1945년 이래

동독을 떠난 동독인들은 270만 명을 넘었기에 동독으로서도 주민 이탈 방지책이 필요했다.

아데나워의 놀라운 통찰력

요약·정리하면, 독일 통일은 국내적으로 극우·극좌 정당을 위시한 반체제 세력을 정리하고, 유럽 최고의 경제성장을 위시한 국력을 배양하면서 기회를 꾸준히 엿보다가 소련과 동유럽의 개혁 및 민주화 분위기와 더불어 국제정세의 유리함을 포착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콜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제정치적 발전이 독일인들에게 통일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었을 때 기본법 속에 부여된 그 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온갖 힘을 모았다.”

동독의 운명을 좌우하던 소련이 경제·체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정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극적으로 통일의 문이 잠시 열렸을 때 독일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8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통일을 달성한 콜 총리에 대한 찬사는 1990년 6월 7일,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터져 나왔다. 콜 총리가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자리에서 데릭 북 하버드대 총장은 콜에게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소수의 사람에 속한다”고 격찬했다.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1989~1990년에 일어난 사건들은 통일의 여정에서 인내와 긴 호흡으로 동서 간 갈등을 극복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둔 아데나워 총리의 통찰력이 옳았음을 확인시켜주었다.

통독 이후 수많은 진실들이 밝혀졌는데, 동독의 경제력이 과대평가 된 부문이 많았다는 점이나, 콜이 “동독이나 소련에 어정쩡한 호의를 보이면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것은 환상”이라고 회고한 점은 타산지적으로 새겨야 할 대목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호의를 보

이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천진난만하거나 위험천만한 생각을 가진 지도층 인사들이 적지 않다. 남북한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란 대의명분을 핑계 삼아 자유통일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려는 무리를 엄중하게 경계해야 한다.

독일 통일은 자유와 민족자결권 수호, 서독 기본법 정신을 수호하는 것, 그것은 유럽의 통일을 추구하고 동시에 전체 독일인들에게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통해 독일통일과 자유를 완성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서독헌법에 들어 있는 통일조항 원칙을 콜 정부는 끝까지 지켰다.

독일 통일의 주체세력은 기독교를 신봉한 기민당 중심의 자유(민주)세력이었다. 서독 정부는 전후복구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 및 서방 세계와의 외교관계를 돈독히 했으며, 한때 독일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주변국 국민들에게 과거의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다. 통일 후에도 유럽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해 주변국들이 신뢰하도록 성실하게 행동으로 실천했다.

동서독 교류에서도 공짜는 없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했다. 서독이 돈을 주면 동독 정부는 동독의 정치범을 풀어주었고, 동독은 방문 허가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또 통일에 도움을 주는 인접 국가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보답을 했다. 소련과 헝가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대표적인 예다.

끝으로 콜의 회고록(김주일 역, <헬무트 콜 총리 회고록: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을 읽으면서 느낀 흥미로운 점은 좌익의 행태는 독일이나 한국이나 유사했다는 점이다. 거짓말을 잘하고, 유언비어를 잘 유포하고, 진실 되지 못한 점이 공통점이었다.

사민당과 녹색당, 좌익 언론의 행태는 한국의 경우와 너무나 유사했다. 6·25 동란과 냉전 분위기에서 1950년대 말에 극좌 정당인 독일공산당이 소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서독 정부는 잔존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사찰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방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는 좌익세력이 상존했다.

우리도 통일의 장정을 원활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부의 적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그들을 여론에서 분리, 억제시켜서 정리해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동독을 붙들고 있는 소련의 원심력이 자체의 경제난과 체제 위기로 약화되었고, 동독 주변국가인 헝가리와 폴란드 등 주변 국가들이 서독에 우호적 입장을 취하면서 통일 정책을 지원했다.

한반도의 경우 북한을 붙들고 있는 중국의 원심력이 동독을 붙들고 있는 소련의 원심력보다 훨씬 강하기에 통일이 늦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 원심력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가가 통일의 관건이다.<끝> **미래한국**

<성경맛보기>

구약의 요한계시록 스가랴서 환상

권호덕 총장

스가랴서는 12개의 소先知서 중에 11번째 위치한 성경이다. 스가랴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이다. 구약성경에만도 이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29명이나 나올 정도로 흔한 이름이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이 이름과 연관된다. 여기 스가랴는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였다. 스가랴는 회복과 영광의 선지자였다. 성경은 그를 묘사할 때 스가랴 외에도 ‘잇도의 손자 베레가’라고 표현한다. ‘베가랴’는 ‘여호와는 복주신다’를 의미하고 ‘잇도’는 ‘지정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이름들만 보아도 스가랴서가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는 것이다.

저서의 목적은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결한 신앙을 확립하며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여 메시아의 영광을 상징하는 성전을 완공하게 하며 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함으로써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의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간직하도록 하는 데 있다.

스가랴서의 특징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 많이 예언한다는 점에 있다. 초림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명칭으로 순(3:8; 6:12), 종(3:8), 목자(13:7), 왕과 제사장(6:13) 등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있을 복음의 부흥(12:10-13:1),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메시아 통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마치 스가랴는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구실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스가랴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6장은 스가랴의 환상에 대해 나오고 7-8장은 금식과 성전건축에 대한 내용이며, 9-14장은 장차 있을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는 1-6장에 나오는 스가랴의 환상을 살펴본다.

스가랴가 본 환상

1) 홍마 탄 자(1:7-17): 이 구절은 홍마(紅馬)를 탄 자는 성전(聖殿)이 재건되며(1:16) 예루살렘이 평안한 가운데 번영하게 될 것을 예언한다는(1:17) 것을 보여준다. 여기 홍마를 탄 자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화석류 나무(이스라엘과) 사이에 섰는데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다. 그는 교회를 파수하고 보호하며 심판자로 재림하시며 왕국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네 뿔과 네 공장(1:18-21): 네 뿔은 네 공장(工匠)에 의해 멸망당한다. 하나님은 유다를 괴롭히던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여기 권력과 교만의 상징인 네 뿔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방의 여러 원수들인데 더러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의 예언에 발맞추어 이 네 뿔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이라고 하며 네 공장들은 이들을 차례로 멸한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산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 맨 후자는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원형을 멸망시킬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다.

3) 척량줄 잡은 자(2:1-13): 이 환상은 대적의 위협에서 벗어난 예루살렘이 크게 번영하고(4-5) 영광과 기쁨을 얻을 것을(10-13) 예언한다. 또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당신의 눈동자로 표현하여(8) 큰 영광과 완전한 보호를 약속한다. 여기 척량줄을 잡은 자는 언약의 천사 즉 예루살렘을 척량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교회가 확장되어야 할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그 확장의 주재자와 규정자이심을 보여준다.

4)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3:1-10): 이 구절은 1차 포로귀환 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아(4)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받음을 보여준다(5). 이것은 유다왕국의 멸망으로 중단되었던 대제사장 직임을 회복시키며, 성전 재건 작업의 기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모세 오경에는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데 그들이 대제사장이 되려면 위임식을 가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그들을 정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것이다(레 8장).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정결의식을 거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여호와와 사자, 사단, 아름다운 옷을 입힘 등등 나온다. 여호와와 사자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행동을 보게 된다.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는 반면에 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재판하는 법정과 비슷하다. 여기엔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을 책망하고 아무런 공로 없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이신칭의 사상이 엿보인다. 이 내용을 조직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선택론, 둘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는 칭의론, 셋째 정한 관을 씌웠다는 성화론, 넷째 왕관은 제사장의 임무를 명하셨다는 직분론 등이다. 이것은 ‘내 종 순’이 오기까지 제사장 반열은 계속 된다는 말이다.

스가랴 3장 9-10절은 메시아 나라의 첫 단계와 둘째 단계를 보여준다. 9절에서 단 하나의 돌에 일곱 개의 눈이

박혀 있다고 했는데, 일곱은 완전수로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와 눈을 표시하며 그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교회를 살피시는 것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은 보좌 앞 일곱영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승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성령을 가리킨다. 하루에 죄악을 사한다는 것은 메시아가 단번에 속죄사역을 감당함을 말한다. 그리고 둘째 단계는 메시아 시대의 안전과 평화, 최후의 영광과 안식을 상징한다.

5)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4:1-14): 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순금 등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파이프)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있다.

순금 등대는 신정국가인 교회를 상징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있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금 촛대를 생각나게 한다(계 1장). 등대가 빛을 비추듯이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 등대가 계속 타며 빛을 비추는데 그 원천은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이다. 여기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 본문은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4:14) 즉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기름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속죄를 통해 죄책을 제거하는 제사장직이요 다른 하나는 보다 높은 성결의 능력을 제공하는 왕직인데, 이 구절은 일차적으로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왕인 스룹바벨을 의미하나, 궁극적으로는 기름부음 받은 자의 원형인 메시아를 가리킨다. 즉 교회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고 세상의 빛이 된다는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4장 6절에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 한 말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은 사역을 감당함을 표시한다.

6) 날아가는 두루마리(5:1-4): 날아가는 두루마리 크기는 가로 20규빗(9미터), 세로 십 규빗(4미터 5센티미터)이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스가랴서는 백성들을 회개시켜 성경하는 만들어 성전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를 통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성전 현관의 크기와 정확하게 같다는 것이다. 성전 현관은 율법을 낭독하는 장소였다. 두루마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을 기록한 문서이다(신 27:15-26, 28:15-68). 이것이 날아다니는 것은 그 위협이 모든 범법자들에게 신속히 쏟아질 태세가 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그 내용은 도적질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의 내용은 엄숙하게 결정된 것으로 전혀 회피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이상은 자기 집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집 재건을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들의 의무를 지키겠다고 해 놓고 지키지 않는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 적용한다.

7) 예바 속에 앉은 여인(5:5-11): 여기 예바는 곡식이 되는 말과 같은 그릇인데 15말 정도 들어가는 큰 통이다. 본문은 예바 가운데 한 여인이 있고 납으로 된 두껍이 예바를 닫는다. 학의 날개를 지닌 두 여인이 나와서 이 예바를 천지 사이에 들어 올려 시날 땅으로 가져갔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심판의 확실성과 완벽성을 상징한다면 이 환상은 심판의 신속성과 방식을 지적해 준다. 예바 속에 있는 여인은 악을 범한 유대인을 가리킨다. 납덩어리는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드리우고 계신 무거운 심



판을 상징한다. 두 전령이 이 예바를 시날 땅으로 옮겼다는 것은 적국 속으로 오랫동안 추방될 것을 가리킨다. 이 일은 400년 후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로 흩어질 때 성취되었다.

8) 네 병거(6:1-8): 본문은 네 병거가 두 늦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는 흑마들이, 셋째는 백마들이, 넷째는 어룡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어졌다.

여기 두 산은 모리아 산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일 가능성이 많다. 그곳은 신정국가의 상징인 성전에 가깝기 때문이다. 두 산은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싼 산으로 그 한 산에 성전이 서 있었다. 두 산은 신정국가의 확고부동한 토대, 즉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상징하고, 이 상징을 더욱 힘 있게 하기 위해 늦 산으로 표시하였다. 늦은 고대인들에게는 강함의 상징이었다. 네 병거는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것과 일치한다(계 6장). 요한계시록의 설명과 연관하여 설명하면 붉은 색 말은 피의 생각인데 큰 칼을 받아 대학살을 일침을 가리킨다. 검은 말은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근과 굶주림을, 흰색 말을 탄자는 활과 면류관을 가졌는데 이것은 승리와 정복을 의미하며, 어룡진 색 말을 탄자는 사망가 음부를 뒤따르게 하는 것을 보아 죽음을 상징한다.

본문은 이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한다. 네



바람은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말한다. 병거 둘은 북쪽 즉 바벨론을 향하고 하는 남쪽 애굽으로 갔으며 또 하나는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모든 가상적국들을 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징벌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대적들인 그들의 적국들도 멸망시킬 것을 선언하신 것이다.

여덟 가지 이상을 언급한 다음, 6장 후반부에서는 제사장 여호수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는 순이라는 사람이 돌아나고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한다(6:12). 그리고 그 위에 제사장이 있고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고 한다.

이 그림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그의 몸 된 지체들이 붙어서 성전을 이루는 것을 보여준다. 처음에 초라했으나 마침내 우주적인 교회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다. 그는 제사장직과 왕직분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우주에 대한 영광의 통치를 한다는 말이다.

나가면서

스가랴서의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려하여 성전을 짓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적용되고 나아가 장차 메시아가 등장할 때 완전히 실현될 것을 가르친다. 즉 스가랴는 당시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 문제도 다루지만 장차 성전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어지는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해야 될 것을 가르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내용 속에는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포함되어 종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도 신·편입생 모집(일반전형)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과 “철저한
성경언어교육에 기초한 주석-설교 훈련”을
바탕으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바른
신학교육의 산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④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7분 거리
 - ⑤ 다양한 장학 제도(성적, 복지, 단독목회, 원우가족, 근로, 특별 등)
 - ⑥ 타 교단 학생으로 본 교단에서 목회를 원할 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회할 수 있도록 함
3.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sb.ac.kr

1. 모집 내용(신입, 편입) - “사회복지학 신설”

과 정		인원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박사과정 (Ph.D.)	-신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0 명	 1. 2017년도 신입입생 모집 2. 전형방법 ① Th. M./ M. Div./ M. A. - 서류전형(1차) - 면접(2차) ② Ph. D. - 서류전형(1차) - 영어 및 전공시험(2차) - 면접(3차) ※ 성경학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다음 '성경의 문학', '성경의 보간학', '성경의 경영학', '성경의 건축학', '성경의 역사관', '존 밀톤의 실낙원에 나타난 구원관', '토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에 나타난 인간이해' 등을 연구하는 과목임. 4. 평생교육원의 특징 - '기독교상담연구반'은 매 학기마다 <u>1개 자격증</u>을 취득할 수 있음 - '평신도조직신학교사반'은 <u>구역장 교육</u>에 매우 좋음 - '목회자 주석-설교반'은 <u>설교 향상</u>에 크게 도움이 됨
신학석사과정 (Th.M.)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선교학	0 명	
목회학석사과정 (M. Div.) 목회학연구과정 (M. Div. eq.)	목회자 양성 과정임	0 명	
석사과정 (M.A.)	-성경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0 명	
평생교육원	-기독교 상담연구반 -평신도 조직신학 교사반 -목회자 주석-설교반	00 명	

2. 특징:

- ① 성경언어 강화를 통한 성경 주석 특성화
- ② 직장인을 위한 수업 운영
- ③ 지방학생 기숙사 제공